

# 현대 서양문명의 뿌리와 연원

웨스트팔 지음 「근대과학의 구조」

요즘 과학사와 과학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과학을 하나의 '기술'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 발전의 역사와 정신, 연구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과학의 사회학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은,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갖는 위치를 생각할 때, 사실 전문가들만 떠맡아야 할 일은 아니다.

물론 학문(자연과학, 사회과학, 혹은 인문과학을 막론하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사나 과학철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흔히 쓰는 '패러다임(paradigm)'이란 말은, 물리학자였던 쿤(T. S. Kuhn)의 과학사, 과학방법론에 대한 고찰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자연과학의 긴 역사와 과학철학의 다른 여러 성과들을 공부할 때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연구자들만 아니라 보통의 현대인들도 생활의 주위에서 자신을 즐겁게 해주거나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과학'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과학의 이름 아래서 모든 것은 미화되고, 진보적인 것으로 치장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과학이 이 시대의 많은 문제의 주범인지 아니면 해결사인지를, 삶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가 해결해 주는 것인지—삶과 시대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법한 이 문제들은 '과학'이란 것과 맞대어 있기 때문이다.

과학사를 공부하거나 과학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근대과학의 구조」(R. S. 웨스트팔 지음, 정명식·김동원·김영식 옮김)라는 책을 권한다. 이 책의 원저자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과학사 교수이고, 원저는 미국에서 학부수준의 과학사 교과서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한다. 역자들 또한 과학철학, 과학사의 전문가들이다.

「근대과학의 구조」는 케플러와 갈릴레오로 시작하여 뉴턴에서 끝나는 서양과학의 17세기를 다루고 있다. 현대 문명의 직접적인 바탕은 사실 이 시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 책 가운데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종교와 과학, 우주와 인간, 생명의 본질 등에 대한 현대 서양인의 생각—많은 부분에서 우리 현대 동양인도 함께하는—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며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은 근본에서 서로 다른 존재

임을 강조했던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 천상계와 지상계의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통일적이고도 기계적인 설명, 생물학의 진정한 시작, 인류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라는 뉴턴—이 모든 것들이 17세기에 있고, 거대한 ‘혁명’을 이루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단순히 몇가지 유용하고 값진 지식을 제공해 주고 끝낸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좋은 책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새로운 질문을 남기기 때문이다—우리의 ‘혁명’적인 17세기는 어디에 있는가?

## 박철성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132-16 16/2 · 대학원생

##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어느 방면으로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그것이 이 땅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의 이야기인 다음에야...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 사람의 놀라운 성공—세상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인지는 몰라도 몇 안되는 재벌들이 줄지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그 형식도 다양해서, 단순한 자서전의 양식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한 항변과 조심스러운 충고 등을 담은 자신의—덧붙여서 스스로가 속한 회사까지—적극적인 홍보용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장시키고 있다. 어쨌든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 하는 자신의 이야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현재 10만을 헤아리는 사람들과 이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최종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위풍당당하고도 소박하게 꺼내놓은 이야기라면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읽을거리임에 틀림없다.

‘나의 경영혁신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서 「오직 이 길밖에 없다」(구자경 저, 행림출판)라는 일순 비장해 보이니까까지 하는 제목의 책은 일단 산뜻한 겉표지부터 눈에 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만큼 잘 표현해 낼 수 없다는 정도로 책의 제목과 부제는 적절하다. 책 한 권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럭키금성사 회장의 경영혁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의 경영”, “21세기 초우량기업” 등의 생소한 단어들 이 이 책의 내용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저자는 이들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비전 제시라고나 할까. 작은 에피소드들을 여섯 묶음(6부)으로 엮어낸 가운데 저자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는 데 일단은 성공한 듯이 보인다. 아울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까지 보통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고뇌하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까닭이다. “안다”라는 것은 곧 “이해한다”로 통하듯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강조되는 속에서 단어의 사용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 중의 남자’라고 따로 지칭하거나 구별해서 써야 맞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남자 중심 혹은 남자들의 이야기이다. 여자는 그저 주부라는 이름의 고객이나 사무보완정도의 여사원으로 등장할 뿐이지 일의 주체는 아닌 것 같다.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기업의 최고경영인의 여성관 혹은 인간관의 모습이 몹시 어색함에 오히려 당황스럽다. 독자가 여성이라면 이런 당혹감은 더하리라 생각된다. 수많은 대졸여성들이 그들의 남자동창들과는 달리 취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와같은 경영인의 자세 때문일까?

이 책에서 욕의 티랄 수 있는 단점이라면 반쪽의 세상을 반쪽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 강은숙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산11번지 20동2반

## 이재운 지음 「소설 토정비결」

한해가 바뀌면 「토정비결」로 점을 보는 것이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확실하게 결정해 준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때 종종 「토정비결」로 미래의 운명을 가늠하기도 한다. 이렇듯 「토정비결」은 우리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 책을 지은 토정 이지함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기인으로서 방랑생활을 많이 하였고, 벼슬을 하지 않아 세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토정비결」을 지은 배경과 토정의 생애, 학문 등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이지함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즉, 이지함은 당대의 대학자인 이이와 친분이 두터웠고 서화담은 그의 스승이었으며 허생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우리 민족사의 대환란인 임진왜란을 대비하기 위한 역학자들의 운명을 건 노력은 지금의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민족성을 고양시키는 데에도 그 가치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이의 십만양병설의 주장배경과 충무공 이순신의 거북선 제작의 원천적인 정보 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물들이 펼치는 관계속에서,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관과 하층민의 고통 등을 지금의 세대와 비교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자아성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토정 이지함은 「토정비결」로 알려진 역술가이지만 이한권의 저술을 위하여 가족과의 갈등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딛고 꾀꾀하게 일어난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이지함의 지혜는 경제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즉, 그는 물류 유통에 관한 생각을 그 시대에 가졌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구한 업적은 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지함은 과거 급제에 장원으로 선발되었지만 모략으로 관직 생활을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야인생활을 하면서 가난과 고통에 빠져 있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눈물겹도록 노력하였다. 그의 노력은 천문, 지리, 산수, 의학, 주역 등 다방면에서 나타난다.

그는 다방면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간 민중의 지도자이며 선각자라 생각된다. 박학다식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하층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선각자인 토정 이지함의 생애와 업적을 이해하고 추앙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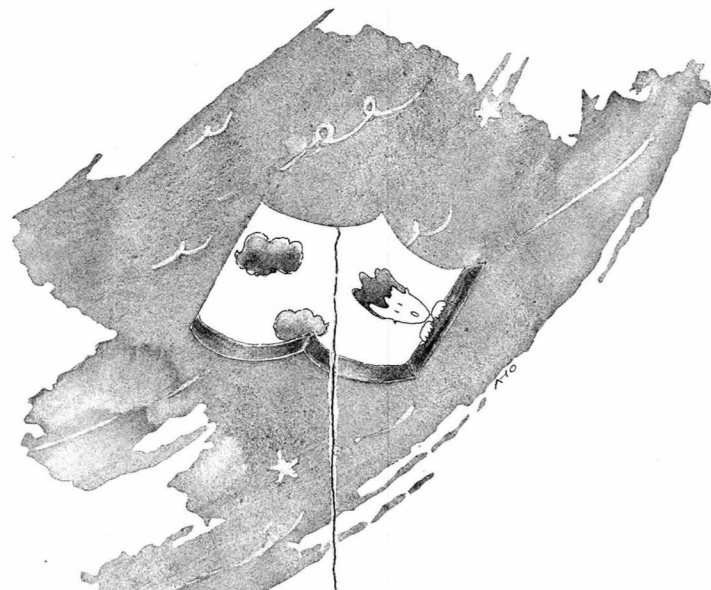
## 정덕기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819-17 13/1 · 학생

## 황경식 엮음 「생각하는 나무」

예나 지금이나 교육만큼 지속적이고도 전폭적인 관심을 받는 분야는 거의 없다. 교육열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다음 세대의 교육문제는

## 책 만드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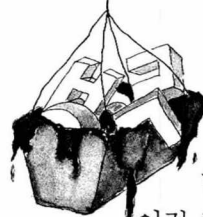


천 매의 원고에서 한 자의 오타도 내지 않기 위해  
열 손가락에 기(氣)를 모으는 전산사식 오퍼레이터

한 권의 책에서 오자 하나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는 교정·교열 편집자

한 줄 로트링 선의 깔끔한 완결을 위해  
숨을 멈추는 일러스트레이터·디자이너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완벽 한 제판·인쇄·제본을 위해  
제작처를 쫓아다니는 제작 담당자.



출판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출판인들의  
전문가 의식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섯 해 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해온 서른 한 명의 바른글방과  
미필적고의 식구들은 전문가로서의 일하는 자세가 어떤 것  
인지를 진지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lt;바른글방&gt;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운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출력

## ▶&lt;미필적 고의&gt;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 ▶&lt;바른글방&gt;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 325-5366(대)  
325-5363~5  
325-6484~5  
팩시 325-5362

다·자·인·전·문·집·단

**미필적고의**

자녀를 둔 부모나 일선의 교육담당자, 기성세대 할 것 없이 모두의 은근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혼탁한 사회에서의 도덕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임에 이견을 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도덕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그 대상이 어린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도덕교육 자체는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청소년을 위한 철학소설’, ‘윤리적 탐구’라는 부제로 펴낸 「생각하는 나무」(철학과 현실사, 황경식 옮김)가 그것이다. 이 책은 미국 어린이철학개발원에서 펴낸 일종의 의도적 소설로, 행간마다 목적하는 바 주제가 숨어 있는,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엮여진 책이다. 그래서 국민학교 고학년이상이면 읽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기 소화하는 능력에 따라 자기것화 할 수 있을 읽을거리이다.

구성은 여러 가족, 또는 어린이들의 에피소드로 엮여져 있다.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전개하고, 이 속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이렇게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주제는 읽는 이로 하여금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토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기도 힘들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예를 들기도 까다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재미있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이 갖는 장점 중의 하나이다. 거의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어서—일례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외국식 이름 그대로이다—우리의 일상적 표현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는 게 하나의 흠이다.

## 김미현

인천시 북구 청천2동 295-5 미도APT. 4-408

## 토마스 해리스 「양들의 침묵」

그 줄거리는 이렇다. ①호모 살인범이 있다. ②그를 찾을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 그는 간혀 있다. ③범인을 잡으려는 여수사관(실은 FBI연수생)이 있다. 그녀는 박사의 도움을 받는다. ④그녀는 범인을 사살한다. 박사는 탈옥한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살인범은 우리의 어두

운 본능을 대표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인물은 당연히 유능한 정신과 의사여야 할 것이다. 한니발 렉터 박사는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는 세련된 교양인이며 미식가이고, 남의 애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즐기며 산다. 그에 비하면 주인공 클라리스의 존재는 미미하다. 그녀의 직책이 FBI요원이라는 사실이 암시하듯 그녀는 렉터 박사의 말을 실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여수사관이라는 사실은 좀더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그녀는 렉터와 상관 크로포드 사이에서 일종의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죽은 아버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그런데 호모 살인범이 날뛰는 이 소설에서 정상적인 남녀관계는 희미하다. 클라리스는 크로포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연애감정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한편 크로포드는 아내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그녀는 식물인간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숨을 거둔다(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또 렉터와 클라리스가 가진 유일한 접촉은 손가락 끝을 스친 것이다. 남녀관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문제는 클라리스에게도 있다. 그 역시 ‘여성적인’ 여성은 아니다. 예컨대 그녀의 격발능력은 남성연수생들을 앞지르고 있다. 그녀는 남성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동성애적 욕망도 잠재해 있다. 그 사실은 우리를 언제나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ADIS시대가 되면서 그 불안은 거의 신경증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때 명쾌한 메시지와 함께 그 욕망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잘 짜인 소설이 있다면 누가 매혹되지 않겠는가?

이 소설도 허점은 있다. 하필 렉터와 클라리스가 대면할때 쫘 캐더린 유괴사건이 터지는가? 난 이유를 모르겠다. 사실 이걸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얻는 안정감에 비하면.

## 김영준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170-181